

# 石渠閣 經學會議에 대한 一考察\*

李 世 東\*\*

<目 次>

I. 머리말	IV. 《穀梁春秋》의 博士 立官과 관련하여
II. 石渠閣 經學會議의 전말	V. 결 론
III. 石渠閣 經學會議의 참가자와 관련하여	

## I. 머리말

漢은 惠帝 4년(B.C. 191)에 秦이 제정한 ‘挾書律’을 폐지하면서부터 경전의 再造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文帝와 景帝의 이른바 ‘無爲之治’를 거친 뒤 武帝는 董仲舒의 “罷黜百家, 獨尊儒術”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학을 통치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고 아울러 五經博士를 설치하여 유학의 관학화를 추진하였다. 무제 元朔 5년(B.C. 124)에는 公孫弘의 건의를 받아들여 박사들이 50인의 弟子員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昭帝 때는 이 박사 제자원을 100인으로 늘렸다. 이처럼 국가가 경학을 장려하면서부터 경학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경설이 점차 다기해지자, 소제를 이은 宣帝는 경설의 분화를 국가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궁중 장서각이었던 石渠閣에서 群儒를 소집하여 《오경》의 同異에 대해 토론하게 하였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KNURF)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慶北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석거각 경학회회의는 후한 章帝 때의 白虎觀 경학회회의와 함께 漢代의 兩大 경학회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내용을 거의 알 수 없다. 백호관 회의의 경우는 회의소집을 위한 章帝의 조서가 《後漢書·章帝紀》에 실려 있고, 회의의 내용은 班固가 《白虎通》으로 취집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 살펴볼 수 있으나 석거각 회의의 경우는 조서도 없고 《백호통》에 비견될 저술도 없기 때문에 기초 자료들이 극히 소략하다. 더구나 이 소략한 자료들을 두고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조차 동일한 사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여 정설을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 무제 이후 또 한 차례 ‘이론통일(歸於一是)’을 시도한 중요한 변론회”<sup>1)</sup>였던 석거학회회의의 전말과 이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은 여전히 고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의 규명은 서한경학을 조망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석거학회회의의 전말을 정리하고, 정리과정이나 혹은 별도의 장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견해가 나누어지는 몇 가지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다. 석거학회회의의 경학사적 의의는 검토의 과정을 읽어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 II. 石渠閣 經學會議의 전말

석거각 경학회회의는 한 선제 甘露 3년 3월(B.C. 51)에 개최되었다. 《漢書·宣帝紀》에는 이와 관련한 짚막한 기록이 있다.

여러 유자들이 《五經》의 同異를 토론하도록 조칙을 내렸다. 太子太傅 蕭望之 등이 그 의론의 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아뢰면 임금께서 친히 결재 하셨다. 이에 梁丘의 《易》과 大夏侯·小夏侯의 《尚書》 및 《穀梁春秋》의 박사가 설립되었다.<sup>2)</sup>

1) 周子同, <博士制度和秦漢政治>, 《周子同經學史論著選集》(朱維鈺 編 第2版 上海: 人民出版社, 1996. 7), 736 쪽

K C I

---

2) 《漢書·宣帝紀》: 詔諸儒講《五經》同異 太子太傅蕭望之等平奏其議 上親稱帝臨決焉 乃立梁丘《易》·大小夏侯《尚書》·穀梁《春秋》博士

이 언급은 비록 짧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회의의 목적과 배경이다. 목적은 《오경》의 동이를 토론하기 위함이었고, 회의 개최의 배경은 경설의 분화다. 경설이 다기하여 이미 인위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학술이 통치이데올로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이념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설의 분화는 이념 체계의 통일을 저해하였고, 이의 통일을 위해서는 경학 내부의 자체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오경》의 동이를 조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다고는 하지만 ‘異’보다는 ‘同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것인 바, 경설들의 ‘이’를 먼저 토론하고 ‘동’으로 귀결되는 방식을 취하였을 것이다.<sup>3)</sup>

기실 위의 인용문에는 진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漢書·列傳》에 산재해 있는 석거회의 참가자에 대한 언급을 통해 진행 방식을 짐작할 수 있다. <열전>에는 석거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의 경우, “석거에서 토론하였다(論石渠)”라는 표현과 “《오경》 제유들과 더불어 석거각에서 동이를 잠론하였다(與《五經》諸儒 雜論同異於石渠閣)”는 표현의 두 가지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儒林傳>의 梁丘賀 조에는 그의 아들 梁丘臨이 석거회의에 참가하였음을 이야기하며, “명을 받들어 使者가 되어 석거각에서 제유들에게 물었다(奉使問諸儒于石渠)”라고 하여 그가 여타의 유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마 양구림은 황제의 명을 받아 제유들에게 經義를 묻고 제유들은 각각의 견해를 밝혀 ‘異’를 말하고 토론과 절충을 통하여 ‘同을 시도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양구림의 이러한 역할은 다음 단락의 인용문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회의의 최종 결정권자는 황제였다. 相異한 경설들이 토론을 거쳐 相同의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며, 황제의 결정을 통해 인위

3) 章權才, 《兩漢經學史》(臺灣版 萬卷樓圖書有限公司 1995), 110 쪽 所謂「講五經同異」, 就是既講五經之「異」, 又講五經之「同」, 重點是放在「同」, …….

적인 상동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는 황제의 권위에 의하여 강제되어야 할 만큼 학설의 분화 현상이 극심하였던 상황을 반영함과 동시에 서한 사회가 이미 경학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의 동일화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학이 무제에 의하여 통치이데올로기로 채택된 이후 선제 때에 이르면 이미 경전의 논리가 정치의 법전으로 작용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선제는 분명 이념 체계의 통일을 위해 석거회의를 소집하고, 이념 체계의 통일을 위해 결재권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求同存異의 방식을 취하였다. 그는 이미 시대가 경전을 편찬 정리한 “성인들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학설이 다양해 진 것을 인정할(學不厭博)”<sup>4)</sup>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제의 이러한 판단이 결국 다양한 학설들을 《石渠議奏》로 휘집하여 보존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석거의주》는 《漢書·藝文志》에 반고가 ‘石渠論’ 등으로 自註한 《尚書議奏》 42편, 《禮議奏》 38편, 《春秋議奏》 39편, 《論語議奏》 18편, 《五經雜議》 18편 등 도합 155편의 서목은 보이지만 모두 망일되었다. 다만 《禮議奏》의 일부만을 馬國翰이 《玉函山房輯佚書》에 모아 두었는데, 회의의 진행과 결과를 수습하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선제 감로 3년 삼월에 黃門侍郎 (梁丘)臨이 아뢰었다. 經文에서 鄉射에는 合樂한다고 하고 大射에는 말하지 않은 것은 왜인가?

聞人通漢이 말하였다. “향사에서 합악하는 것은 민간의 예이기 때문이니 백성들이 화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사에서 합악하지 않는 것은 제후의 예이기 때문이다.”

韋玄成이 말하였다. “향사례에서 합악하는 것은 향인들은 원래 음악이 없기 때문에 세시에 합악하여 백성들이 화합하고 뜻을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후의 경우도 마땅히 음악이 있어야 한다. 傳에, ‘제후가 매달 아 둔 악기를 풀지 않는 것은 항상 쓸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라고 하였

4) 《後漢書·章帝紀》: 孝宣皇帝以爲去聖久遠, 學不厭博, ……;

으니 군신이 어울리는 조정에는 (음악이) 당연히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음악을 합주한 뒤에 화합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굳이 합악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의 公卿들은 위현성의 견해를 옳다고 여겼다.<sup>5)</sup>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구림이 질문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였는데 양구림이 ‘아뢰었다’는 표현을 쓴 것은 황제도 임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양구림은 《易》을 ‘專門<sup>6)</sup>’으로 하였으나 《禮》를 묻고 있으니 그는 전문과 관계없이 회의 줄곧 토론의 문제 제기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은 천자가 국가의 제사를 거행하기 전에 제사 참석자를 선발하기 위해 치루었던 大射의 의식에서 ‘合樂’한다는 조문이 경전에 없는 것을 논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인통한과 위현성이 각각 의견을 달리 하였다. 문인통한은 제후의 예에는 원래 합악이 없는 것이라 하였고, 위현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처럼 대립된 의견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를 모두 수록하여 보존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방식은, 의견이 대립할 경우 황제가 최종적으로 결재권을 행사하여 어느 한 쪽의 견해를 인정한 다른 대목<sup>7)</sup>과 비교할 때 분명 ‘學不厭博’의 방식이다. “공경들은 위현성의 견해를 옳다고 여겼다”는 언급이 있으나 이는 회의장의 분위기를 전달한 것일 뿐,

5) 《玉函山房輯佚書·石渠禮論》(臺灣: 文海出版社影印 濟南刻本), 1060쪽: 宣帝甘露三年三月, 黃門侍郎臨奏, 經曰: 鄉射合樂, 大射不, 何也? 聞人通漢曰: “鄉射合樂者, 人禮也, 所以合和百姓也; 大射不合樂者, 諸侯之禮也。” 韋元(玄 康熙避諱)成曰: “鄉射禮所以合樂者, 鄉人本無樂, 故合樂歲時, 所以合和百姓, 以同其意也。至諸侯當有樂, 傳曰: ‘諸侯不釋懸, 明用無時也, 君臣朝廷當有之矣, 必須合樂而後合, 故不云合樂也。” 時公卿以元成議是

6) ‘專門’은 원래 ‘顯門’이라고 표기하였으며 경학의 ‘師法’과 ‘家法’이 엄격해지면서 생겨난 용어이다.

7) 《玉函山房輯佚書·石渠禮論》(臺灣: 文海出版社影印 濟南刻本), 1060쪽: 大宗無後, 族無庶子, 己有一嫡子, 當絕父祀以後大宗不? 戴聖云: “大宗不可絕, 言嫡子不爲後者, 不得先庶耳。族無庶子, 則當絕父以後大宗。” 聞人通漢云: “大宗有絕, 子不絕其父。” 宣帝制曰: “聖議是也。”

‘同’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다. 임석한 황제가 최종결정을 보류하였던 것이다.

황제가 최종 결정을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논의의 내용은 모두 보존되었는데, 이는 백호관 회의의 결과물인 《白虎通》이 질문과 답변만 실어 토론 과정의 다양한 견해들을 없애버린 것과 다르다. 《백호통》은 황제의 최종 판단을 거쳐 인정받은 하나의 견해만을 보존하여 이념 통일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석거각 회의는 ‘學不厭博’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결국 黨同伐異의 폐단을 야기하여 후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sup>8)</sup>

셋째, 석거회의의 결과에 따라 박사를 증원하였다. 이념 체계의 통일을 위해 소집한 회의의 목적은 퇴색해 버리고, ‘學不厭博’의 취지에 따라 梁丘의 《역》과 大夏侯·小夏侯의 《상서》 및 穀梁 《춘추》의 박사가 증설된 것이다. 求同存異의 방식을 취하여 학술의 발전에는 기여하였을지 모르나 이념 체계의 통일이라는 원래의 목적에는 실패한 것이다.

반고는 이 대목에서 증설된 박사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기존의 박사와 합산할 경우 박사의 定額이 몇 명이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중국의 經學史家 章權才는 14명을 주장<sup>9)</sup>하였고 대만의 徐復觀과 黃彰健은 12명을 주장<sup>10)</sup>하였다. 徐·黃이 12명이라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漢書·百官公卿表》의 “무제 건원 5년에 처음 오경박사를 설치하고, 선제 황룡 원년에 12인으로 증원하였다”<sup>11)</sup>는 한 대목이다. 황룡 원년은 감로 3년에 석거회의가 개최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석거의주》의 서목 155편에 비추어 회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이며 회

8) 《後漢書·黨錮列傳》: 至有石渠分爭之論, 黨同伐異之說, 守文之徒, 盛於時矣. 《晉書·儒林傳·范宣》: 漢興, 貴經術, 至於石渠之論, 實以儒爲弊. 《南齊書·劉瓛陸澄傳贊》: 自後專門之學興, 命氏之儒起, 石渠朋黨之事, 白虎同異之說, 六經五典, 各信師言, 嗣守章句, 期乎勿失.

9) 章權才, 앞의 책, 111쪽.

10) 徐復觀, 《中國經學史的基礎》(臺灣 學生書局, 1982), 75쪽.  
黃彰健, 《經今古文學問題新論》(臺灣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82), 129-139쪽  
<論東漢時光武帝之置十四博士> 참조

11) 《漢書·百官公卿表》: 武帝建元五年置五經博士, 宣帝黃龍元年稍增員十二人.

의가 마무리되고 난 뒤 후속조치의 기간을 감안하여 황룡 원년에 박사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 徐·黃의 이러한 견해는 거슬러 올라가면 王國維가 《觀堂集林·漢魏博士考》에서 구체적으로 박사원을 제시한 내용<sup>12)</sup>을 수용한 것일 뿐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황창건은 그밖에도 《漢書》와 《後漢書》의 여러 조문들을 인용하며 왕국유의 설을 보완하였는데 설득력이 있다.

왕국유·서복관·황창건 등의 견해에 따르면 석거회의의 결과로 《易》의 施·孟·梁丘 3家, 《詩》의 魯·齊·韓 3家, 《禮》의 后氏, 《書》의 歐陽·大夏侯·小夏侯 3家, 《春秋》의 公羊·穀梁 2家の 12 博士가 갖추어졌다. 한초부터 존치되었던 《시》의 노·제·한 3가를 제외하고, 무제가 오경박사를 설치한 이래 동일한 경전을 두고 ‘家를 나누지 않았던 전통<sup>13)</sup>이 석거회의를 계기로 깨진 것이다. 이는 경설의 분화가 국가의 공인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師法을 통하여 《오경》 각 經師들의 전승이 중시되던 시대가 이제 각 경전마다 各家의 경설이 달라지는 家法 중시의 시대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석거각 경학회의는 결국 ‘뿔의 조정을 통하여 ‘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뿔’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감하였던 것이다.



12) 黃彰健, 앞의 책, 134쪽 再引 宣帝末所有博士, 《易》則施·孟·梁丘, 《書》則歐陽·大·小夏侯; 《詩》]則魯·齊·韓, 《禮》則后氏, 《春秋》公羊·穀梁 適得十二人.

13) 《漢書·儒林傳贊》: 初, 《書》唯有歐陽, 《禮》后, 《易》楊, 《春秋》公羊而已. 至孝宣世, 復立大·小夏侯《尚書》, 大·小戴《禮》, 施·孟·梁丘《易》, 穀梁《春秋》.

### Ⅲ. 石渠閣 經學會議의 참가자와 관련하여

이상에서 《한서·선제기》의 한 단락을 근거로 석거회의의 전말을 살펴 보았다. 필자는 이 짧은 언급이 중국경학사의 중대한 맥락이었던 석거회의에 대한 《한서》의 유일한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왕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 단락과 함께 《한서·유림전》의 한 단락도 석거회의에 대한 기록이라고 간주하였다.<sup>14)</sup> 우선 문제의 단락을 살펴보자.

(《곡량춘추》는) 元康 연간에 처음 강학이 시작되어 甘露 원년에 이르기까지 십여 년이 쌓이니 모두 분명하게 익히게 되었다. 이에 《오경》의 名儒인 태자태부 소망지 등을 불러 殿中에서 대대적으로 논의하게 하여 《공양》과 《곡량》의 동이를 변론하고 각각 《춘추》 경문에 의거 시비를 가리도록 하였다. 당시 《공양》 博士 嚴彭祖, 侍郎 申輓, 伊推, 宋顯과 《곡량》 議郎 尹更始, 待詔 劉向, 周慶, 丁姓 등이 함께 토론하였다. 공양 학자들은 여러 차례 동이를 언지 못하자 시랑 許廣을 들이기를 청하였다. 사자가 곡량학자 中郎 王亥를 함께 들여 각각 5인이 30여 시안을 토론하였다. 소망지 등 11인은 각각 經義로써 응대하였는데 (임금이) 《곡량》의 견해를 많이 따랐다. 이로부터 《곡량》의 학이 크게 성하게 되었다. 주경과 정성은 모두 박사가 되었다.<sup>15)</sup>

14) 徐復觀의 앞의 책 180-181쪽, 章權才의 앞의 책 109-110쪽, 周予同의 앞의 논문 735쪽, 錢穆의 <兩漢博士家法考>, 《兩漢經學今古文平議》(北京: 商務印書館, 2001) 206쪽이 모두 그러하며, 趙吉惠·郭厚安·趙馥潔·潘策 주편의 《中國儒學史》(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의 317쪽에는 두 대목이 각기 다른 사실의 기록인 것으로 서술하다가 <유림전>에서 언급한 회의에 참가한 인물들이 석거회의에 참가한 것처럼 기술하여 철저히 못하다. 다만 華友根의 《西漢禮學新論》(上海: 社會科學院出版社, 1998)은 123쪽에서 각기 다른 시기의 회의임을 밝혀 기왕의 견해들과 상치되지만 전혀 논증 없이 宣帝 연간에 두 차례의 경학회의가 있었음만 언급하였다.

15) 《漢書·儒林傳·瑕丘江公 條》: 自元康中始講, 至甘露元年, 積十餘歲, 皆明習乃召《五經》名儒太子太傅蕭望之等大議殿中, 平《公羊》·《穀梁》同異, 各以經處是非. 時, 《公羊》博士嚴彭祖·侍郎申輓·伊推·宋顯, 《穀梁》議郎尹更始·待詔劉向·周慶·丁姓并論, 《公羊》家多不見從, 願請內侍郎許廣, 使者亦

K C I

---

并内《穀梁》家中郎王亥，各五人，議三十餘事，望之等十一人各以經誼對，多從《穀梁》，由是《穀梁》之學大盛，慶·姓皆為博士。

《곡량》과 《공양》의 동이를 변론한 이 모임을 석거회의의 일부라고 파악한 것은 아마 석거회의와 마찬가지로 소망지가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주경과 정성이 모두 박사가 되었다는 기록을 《곡량》 박사가 설립되었다고 한 석거회의의 결과와 동일시한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 두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漢書·蕭望之傳》과 《漢書·百官公卿表》에 따르면 소망지는 원래 后倉과 夏侯勝을 사사하며 《齊詩》와 《論語》, 《禮》의 <喪服> 등을 배워 젊은 시절부터 장안의 제유들로부터 칭찬받은 탁월한 학자였다. 민간에 있을 때부터 그의 명성을 익히 들은 宣帝의 총애를 받아 여러 벼슬을 거친 뒤 神爵 3년(B.C. 59)에 御史大夫까지 승진하였으나 거만하고 무례하다는 탄핵을 받고 五鳳 2년(B.C. 56)에 太子太傅로 좌천되었다. 당시 어사대부를 거치고 나면 승상이 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태자태부로 좌천됨으로써 결국 승상이 되지 못하였다. 비록 승상이 되지는 못하였으나三公(丞相, 太尉, 御史大夫)의 반열에 오른 조정의 원로였다. <백관공경표>에 등재되어 있는 동시대 고관들 가운데 경학사에 이름이 보이는 자를 찾기 어려운 바, 아마 당시 지위와 학식을 겸비한 자로는 소망지가 거의 유일하였던 듯 하다. 그는 당대의 儒宗이며 社稷之臣이었던 것이다.<sup>16)</sup>

그의 이러한 위상에 비추어, 황제가 개최한 국가적 규모의 학술대회를 주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지가 대표로 등장한다고 해서 석거회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혹 소망지가 위의 회의와 석거회의 참석할 당시 직함이 모두 태자태부인 것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백관공경표>에 따르면 소망지가 태자태부에서 前將軍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黃龍 원년(B.C. 49)인 바 7년 동안 태자태부로 있었으니, 이 기간 동안 석거회의와 별도로 《춘추》 회의에 참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다. 소망지는 조정의 원로이며 당대의 儒宗으로서 두 차례의 경학회의에 모두 참여하였던 것이다.

16) 《漢書·蕭望之傳贊》: 望之堂堂, 折而不撓, 身爲儒宗, 有輔佐之能, 近古社稷臣也.

위의 인용문의 도입부는 博士 立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곡량춘추》의 강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10여 년의 기간을 원강 연간으로부터 감로 원년까지라고 한 뒤, ‘이에(乃)’ 경학회의를 개최했다고 하였으니 이 회의가 감로 원년에 이루어졌음을 문면상에 분명히 밝힌 것이다. 만약 이 회의가 감로 3년 석거회의의 일부라면 감로 원년부터 감로 3년까지는 《곡량춘추》가 강학되지 않았다는 말인데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 회의가 석거회의의 일부가 될 수 없는 것은 30여 사안이라는 토론의 분량으로 보더라도 분명하다. 앞 장에서 인용한 석거 《禮議奏》를 보면 매 사안의 토론내용을 요점만 추려 간략히 기록하여 편폭이 그리 길지 않다. 30여 사안을 가지고 <예문지>에 전하는 《춘추의주》 39편을 만들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회의는 석거회의가 개최되기 2년 전인 감로 원년의 《춘추》 회의였던 것이다.

이 회의를 석거회의로 간주한 기왕의 연구자들은 《한서·열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참가자를 22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춘추》 회의 참가자 10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또 참가자들을 專門으로 나누어 열거하였다. 예컨대 錢穆은,

《易》家: 施讐 梁丘臨  
 《書》家: 歐陽地餘 林尊 周堪 張山拊 假倉  
 《詩》家: 韋玄成 張長安 薛廣德  
 《禮》家: 戴聖 聞人通漢  
 《公羊》家: 嚴彭祖 申輓 伊推 宋顯 許廣  
 《穀梁》家: 尹更始 劉向 周慶 丁姓 王亥

등으로 분류하여 22명이 참석하였다고 하였다.<sup>17)</sup> 이들이 회의의 대표자격인 소망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그가 一經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다만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소망지는 원래 《齊詩》를 배

17) 錢穆, 앞의 논문, 206쪽.

위 시학의 전문가였으니 전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굳이 전문을 나누어 포함시킨다면 《詩》家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을 나누어 규정해 버리면 각각의 전문에 소속된 인물들이 그 경전만을 대상으로 토론하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소망지는 《齊詩》만 익힌 것이 아니라 《論語》와 《禮》도 익혔으니 一經으로 규정할 수 없다. 실제로 현존 《禮議奏》 잔편에는 戴聖, 聞人通漢과 함께 소망지와 《詩》家로 규정한 韋玄成이 주요 토론자로 등장하고 있어, 소망지가 토론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양이 있는 자들은 전문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경전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문을 나누어 참가자를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公羊》家와 《穀梁》家の 10인을 제외한 나머지 12인은 모두 《한서·열전》에 “論石渠”, “與《五經》諸儒 雜論同異於石渠閣”, “奉使問諸儒于石渠” 등으로 석거회의에 참여하였음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公羊》家와 《穀梁》家の 10인은 《漢書·儒林傳·瑕丘江公》의 《춘추》 회의에 참여하였던 사실에 의거하여 포함시킨 것이니 제외시켜야 한다. 이들이 2년 뒤의 석거회의에 다시 참석하였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명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劉向의 경우는 《漢書·楚元王傳·劉向 條》에 “講論《五經》於石渠”라고 하였으니 다시 참가하였음이 분명하다. 《禮記正義·禮運》에 後漢의 許慎이 尹更始와 劉向이 석거회의에 참석하여 이야기한 내용을 밝힌 것이 인용<sup>18)</sup>되어 있으므로 윤경시도 다시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석거회의 참가자는 蕭望之, 施讐, 梁丘臨, 歐陽地餘, 林尊, 周堪, 張山拊, 假倉, 韋玄成, 張長安, 薛廣德, 戴聖, 聞人通漢, 尹更始, 劉向 등 모두 15인이다. <예문지>에 전하는 《石渠議奏》 목록의 편수나 석거회의와 비슷한 시기에 특정사안을 두고

18) 《禮記正義·中》(標點本; 北京大學出版社, 1999), 703 쪽 許慎謹按 公議郎尹更始·待詔劉更生(即 劉向)等議石渠 以爲吉凶不並, 瑞災不兼 今麟爲周亡天下之異, 則不得爲瑞, 以應孔子至, 玄之閣也

이루어진 조정의 논의조차 44인, 70인 등이 참가하였던 기록 19)이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훨씬 많은 인원들이 참가하였을 터이지만 현존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은 15인이다

이제 위에서 인용한 《춘추》 회의의 기록에서, “주경과 정성은 모두 박사가 되었다”는 언급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터이지만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 IV. 《穀梁春秋》의 博士 立官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漢代 초기 穀梁學의 전승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最古의 자료는 《漢書·儒林傳·瑕丘江公 條》이다. 우선 이를 토대로 穀梁學의 전승과정을 정리해 보자.

西漢의 公羊학는 《魯詩》의 전문가였던 申(培)公으로부터 시작한다. 신공은 그의 학을 瑕丘江公에게 전수하였는데, 강공은 公羊學의 전문가였던 董仲舒와 동시대 인물이다. 그는 일찍이 무제의 명으로 동중서와 《춘추》를 토론하였으나 동중서보다 못하였다. 토론의 내용은 승상 公孫弘에 의하여 무제에게 보고되었고 무제는 동중서의 설을 취하여 公羊학을 존중하게 되었다. 아울러 태자에게도 《公羊春秋》를 배우게 하니 이로부터 公羊학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하구강공이 동중서와 가진 한 차례 토론회의 결과로 인해 公羊학이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의 승상 公孫홍은 公羊학을 익힌 학자였다. 《漢書·儒林傳·胡毋生 條》와 《漢書·公孫弘傳》에 따르면, 公孫홍은 40여 세에 《公羊춘추》

19) 예컨대 《漢書·韋賢傳·韋玄成 條》를 보면, 元帝 永光 4년에 郡國의 廟制가 禮에 맞지 않음을 논의케 하면서 將軍·列侯·中二千石·二千石·諸大夫·博士·議郎들과 토론케 하였는데, 丞相 韋玄成, 御史大夫 鄭弘, 太子太傅 嚴彭祖, 少府 歐陽地餘, 諫大夫 尹更始 등 70인이 참여하였으며 한 달 뒤에 다시 개최된 토론에는 韋玄成 등 44인이 참가하였다.

박사 胡毋生을 사사하였고 무제가 즉위한 뒤 賢良으로 추천되어 60세에 박사가 되고 승상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가 《공양춘추》로 인해 한무제의 총애를 받아 승상이 되었으니,<sup>20)</sup> 그나 무제나 《공양춘추》에 경도되어 있었을 터이고 하구강공은 애초부터 불리한 토론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무제가 공양학에 편향되었던 것은 물론 공손홍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獨尊儒術을 주장한 동중서의 전문이 공양학이었으며, 공양학은 유학의 통치 이념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텍스트였다.<sup>21)</sup> 무제 역시 처음부터 수용할 생각이 없었던 곡량학을 토론에 부침으로써 배척의 명분을 갖추고자 한 것은 아닌지?

그러나 아버지 무제와는 달리 태자 劉據는 《공양춘추》를 다 배운 뒤 사사로서 《곡량춘추》의 내용을 물어보고는 훌륭하다고 여겼다. ‘사사로서 물어보았다’는 표현의 원문은 ‘私問’이다. 아버지가 배우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私’일 터이지만 웬지 ‘아버지가 배우지 못하도록 한 것을 몰래’ 배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처럼 곡량학에 관심을 보이던 戾太子 劉據는 江充의 巫蠱獄에 연루되어 자결하고 만다. 그나마 후원자로서 유력해 보이던 인물마저 사라지고 만 것이다. 따라서 곡량학은 쇠퇴하였고 오직 榮廣과 皓星公 두 사람이 전수받았다. 영광이 당시 公羊大師였던 眭孟과 논쟁을 벌여 여러 차례 이기고부터 배우는 자들이 《곡량춘추》 배우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영광의 문하에서 蔡千秋와 周慶, 丁姓이 배출되었는데 채천추는 호성공에게도 배워 가장 뛰어났다.

이상이 宣帝 이전 곡량학 전승의 개략적인 내용이다. 선제는 戾太子의 손자이다. 조부가 자결하고 난 뒤 어렵사리 목숨을 건져 민간에서 자라다가 昭帝가 죽고 난 뒤 18세에 즉위하였다. 선제는 그의 조부가 《곡량춘추》를 좋아하였다는 말을 듣고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이와 관련한 대목

20) 《漢書·儒林傳》: 及竇太后崩, 武安君田蚡爲丞相, 黜黃老·刑名百家之言, 延文學儒者以百數, 而公孫弘以治《春秋》爲丞相封侯, 天下學士靡然鄉風矣.

21) 章權才, 앞의 책, 제3장 <反映漢初中小地主階層利益的董仲舒的《春秋公羊》學> 참조.

을 살펴보자.

선제는 즉위하고 나서 衛太子(즉, 戾太子)가 《곡량춘추》를 좋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승상 韋賢과 長信少府 夏侯勝 및 시중 樂陵侯 史高에게 물어 보았는데 모두 魯 나라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穀梁子是 원래 魯學이고 公羊氏는 齊學이니 《穀梁》을 일으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당시 蔡千秋가 郎으로 있었는데 불러 보고는 公羊家들과 더불어 함께 토론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곡량》의 견해를 좋다고 여기고 천추를 발탁하여 諫大夫給事中으로 삼았다가 후일 잘못이 있어 平陵令으로 좌천시켰다. 다시 《곡량》에 능숙한 자를 찾았으나 천추만한 이가 없었다. 임금께서 그 학문이 또 끊어지는 것을 안타깝이 여겨 천추를 郎中戶將으로 삼고 郎 10인을 선발하여 배우도록 하였다. …… 마침 천추가 병으로 죽자 江公의 손자를 불러 박사로 삼았다. 劉向이 지난날 諫大夫를 지내고 待詔에 통달함으로 《곡량》을 배우도록 하여 (강박사를) 돕게 하고자 하였다. 강박사가 다시 죽자 周慶과 丁姓을 待詔保宮으로 삼아 10인을 가르치게 하였다. 元康 연간에 처음 강학이 시작되어 甘露 원년에 이르기까지 십여 년이 쌓이니 모두 분명하게 익히게 되었다.<sup>22)</sup>

곡량학을 일으키기 위한 선제의 애뜻한 노력이 행간에 배어있는 기록이다. 선제는 앞에서 살펴 본 특수한 처경으로 인해 그의 조부 戾太子에 대한 향념이 각별하였던 듯 하다. 어쩌면 조부가 《곡량춘추》를 좋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곡량학을 일으키려는 의지를 굳혔는지 모른다. 10여 년 간에 걸친 거의 치밀한 안배와 노력은 일관된 의지가 없었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신하들에게 지문을 구하여 곡량

22) 《漢書·儒林傳·瑕丘江公條》: 宣帝即位, 聞衛太子好《穀梁春秋》, 以問丞相 韋賢·長信少府夏侯勝及侍中樂陵侯史高, 皆魯人也, 言穀梁子本魯學, 公羊氏乃齊學也, 宜興《穀梁》. 時千秋爲郎, 召見, 與《公羊》家并說, 上善《穀梁》說, 擢千秋爲諫大夫給事中, 后有過, 左遷平陵令, 復求能爲《穀梁》者, 莫及千秋, 上愍其學且絕, 乃以千秋爲郎中戶將, 選郎十人從受. …… 會千秋病死, 徵江公孫爲博士, 劉向以故諫大夫通達待詔, 受《穀梁》, 欲令助之, 江博士復死, 乃徵周慶·丁姓待詔保宮, 使卒授十人, 自元康中始講, 至甘露元年, 積十歲, 皆明習

학가 채천추를 승진시키고, 지방관으로 좌천된 채천추를 곡량학의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불러올려 후학을 양성하도록 하고, 채천추가 죽고 난 뒤에는 瑕丘江公의 손자를 불러 박사로 삼은 일 등은 곡량학에 대한 집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채천추가 좌천되었을 때 강공의 손자를 부르지 않은 것은 그의 학문이 채천추에 미치지 못하여서일 것이며, 당시의 인재였던 유향으로 하여금 《곡량》을 배워 그를 돕게 한 것도 동일한 맥락일 것이다. 만약에 강공의 손자가 탁월한 학식의 소유자였다면 이름이 전하지 않을 리 없으니, 그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博士에 임명한 것은 아마 그가 戾太子와 동시대의 《곡량》 전문가였던 하구강공의 손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10여 년에 걸친 선제의 노력 덕택에 곡량학은 어렵사리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선제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경학사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한다. 아마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곡량춘추》를 볼 수 없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선제는 이렇게 10여 년 동안 곡량학의 인재들을 착실히 기른 뒤 드디어 공양학가들과 토론을 벌이게 하였다. 그 토론회가 바로 앞 장에서 살펴본 《춘추》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선제는 곡량가의 견해에 동조하였다. 걱정하고 한 일이었을 것이다. 지난날 그의 증조부 武帝가 공양학을 지원하기 위해 동중서와 하구강공이 설전을 벌이도록 한 것처럼, 비운의 戾太子, 그 戾太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곡량학을 일으키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였던 것이다. 魯學이었던 곡량학을 일으키려는 황제의 의지 앞에 《齊詩》를 배웠던 소망지도 들러리를 설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때부터 《곡량》의 학이 크게 성하게 되었다.

《춘추》 회의의 이면에는 이러한 사연이 숨어 있기 때문에 《오경》의 同異를 토론케 하였던 석거회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곡량》의 인재들을 착실히 길러 자신감이 생긴 선제가 甘露 元년에 《곡량》 부흥이라는 치밀한 계획 하에 개최하였던 회의가 춘추 회의였던 것이다. 2년 뒤의 석거회의는 혹, 《공양》이 獨擅하던 시대에 《곡량》을 살려놓

고 보니 一家가 독천하고 있던 다른 경전들로 관심이 옮겨간 결과일 수는 있을 것이다.

이제 周慶과 丁姓의 박사 임명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자. 班固는 석거 회의를 기록하면서 穀梁 《春秋》의 박사가 설립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곡량춘추》의 박사는 석거회의의 결과로 처음 설립된 것도 아니고 《춘추》 회의의 결과로 처음 설립된 것도 아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본 것처럼 하구강공의 손자가 《춘추》 회의 이전에 이미 최초의 《곡량》 박사가 되었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에는 박사를 세우지 않았다가 《춘추》 회의를 치르고 난 뒤 어느 시점엔가 주경과 정성을 박사에 임명하였던 것이다. 행문의 분위기로 보아 《춘추》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꺼번에 두 사람을 박사로 임명하였다기보다 “이로부터 《곡량》의 학이 크게 성하게 되니 주경과 정성도 모두 박사를 역임하였다” 정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漢代에는 齊學과 魯學의 학풍상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제학은 ‘恢奇駁雜’하여 陰陽五行을 이야기하기 좋아하였고, 노학은 ‘謹嚴朴實’하여 訓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sup>23)</sup> 《곡량춘추》의 발흥을 동중서 이래 우위를 점해 온 제학에 대한 반발로서 노학이 일어나게 된 맥락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터이다. 금문경학과 고문경학의 논쟁을 제학과 노학의 논쟁으로 보는 견해<sup>24)</sup>가 있고 보면, 연구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도 있어 보이지만 《곡량춘추》의 박사 입관이라는 한 가지 사실과 관련시켜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을 듯하여 생략한다.

23) 錢穆, 앞의 논문, 220-223쪽 <齊學與魯學> 참조.

24) 范文瀾, <經學講演錄>, 《范文瀾歷史論文選集》(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79), 311쪽 참조.

## V. 결 론

석거각 경학회회는 경학사에 있어 초유의 대토론회였다. 본고는 이 회의와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새로운 사실이나 기존 연구들에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결론을 삼기로 한다.

첫째, 감로 3년에 개최된 석거회의는 황제 임석하에 진행되었으며 양구림이 질문하고 제유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한 제유들은 굳이 專門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전문을 제외한 여타 경전에 소양이 있을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둘째,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상이한 의견이 대립할 경우 최종적으로 황제의 의견에 따라 어느 한 쪽의 견해를 인정하되 다른 의견도 함께 기록하여 ‘學不厭博’의 방식을 취하였다. 때로는 황제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도 있었던 듯 하며, 이 경우는 황제의 견해 없이 상이한 견해들만 함께 기록하여 두었다.

셋째, 석거회의의 결과로 黃龍 元년에 기존의 박사가 12박사로 증설되었다. 이는 석거회의가 ‘뿔’의 조정을 통하여 ‘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뿔’을 인정함으로써 이념 체계의 통일에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넷째,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석거회의의 참석자는 황제를 제외하고 15인이었다. 이는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22인 설을 부정한 것이다. 물론 15인도 문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일 뿐, 실제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기왕의 많은 연구자들이 석거회의의 일부로 간주하였던 《춘추》회의는 甘露 元년에 선제의 각별한 의도 하에 개최된 별도의 회의였다. 선제는 거의 絶學의 위기에 처해 있던 공양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10여 년에 걸쳐 공양학의 인재를 기른 뒤 공양학가들과 일전을 벌이도

록 하였던 것이다.

여섯째, 《곡량춘추》 박사는 甘露 3년의 석거회의의 결과로 처음 설립된 것도 아니고 감로 원년의 《춘추》 회의의 결과로 처음 설립된 것도 아니다. 하구강공의 손자가 《춘추》 회의 이전에 이미 최초로 《곡량》 박사에 임명되었었다.

<參考文獻>

- 《禮記正義》(標點本; 北京大學出版社)  
《漢書》(標點本; 北京 中華書局)  
《後漢書》(標點本; 北京 中華書局)  
《晉書》(標點本; 北京 中華書局)  
《南齊書》(標點本; 北京 中華書局)  
馬國翰, 《玉函山房輯佚書·石渠禮論》(濟南刻本 臺灣 文海出版社影印)  
錢穆, <兩漢博士家法考>, 《兩漢經學今古文平議》(北京 商務印書館, 2001 .  
徐復觀, 《中國經學史的基礎》(臺灣 學生書局), 1982.  
范文瀾, <經學講演錄>, 《范文瀾歷史論文選集》(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79.  
周予同, <博士制度和秦漢政治>, 《周予同經學史論著選集》(朱維鈞 編 第2版; 上海: 人民出版社) 1996.  
黃彰健, 《經今古文學問題新論》(臺灣 中央研究院歷語所), 1982.  
章權才, 《兩漢經學史》(臺灣版; 臺北 萬卷樓圖書有限公司), 1995.  
趙吉惠·郭厚安·趙馥潔·潘策 主編, 《中國儒學史》(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華友根, 《西漢禮學新論》(上海 社會科學院出版社), 1998.  
김 근, 《한자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서울: 민음사), 1999.

< 中文提要 >

石渠閣經學會議是經學史上第一次召開的大討論會。本論文通過對這次會議的考察引出如下的結論。

一，甘露三年(B.C. 51)召開的皇帝親臨的石渠會議以梁丘臨先提問後由諸儒討論的方式進行。諸儒不拘專門，如有見聞于其他經典者，也可參加該經的討論。

二，對於一個事案有相異的意見時，由皇帝作最終決定。但別的意見也記錄留下；當皇帝也不能決定時，則不錄皇帝的意見而只錄會議所有意見。

三，石渠會議的結果，在黃龍元年(B.C. 49)博士額員增加到十二名。這意味着沒達到以調整相異的經說來統一的根本目的。

四，從文獻上可確認的石渠會議參加者有十五人。

五，先行研究者們大都主張《漢書·儒林傳》的《春秋》會議是石渠會議的一部分。可是，《春秋》會議是甘露元年(B.C. 53)召開的另一次經學會議，絕不是石渠會議。宣帝對絕學危機的穀梁學予以深切的關注，十多年來培養人材而向公羊學家們開戰，那就是《春秋》會議。

六，立官《穀梁春秋》博士不是在甘露三年的事情，也不是在甘露元年的。《春秋》會議之前宣帝已任命《穀梁》專家瑕丘江公的孫子為《穀梁》博士。

주제어: 石渠會議, 《春秋》會議, 學不厭博, 《穀梁春秋》博士, 宣帝